

# 익산시, '넥솔론' 정상화 인간힘

## 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동일 계열 기업·전북도·정치권 등과 해결방안 모색

익산시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넥솔론의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 정치권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4월 넥솔론이 법원 기업회생 계획안 채택된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시 공무원을 넥솔론에 수차례 파견해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5월에는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동일 계열 기업을 방문해 넥솔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회생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30일 정현을 시장은 넥솔론 기업 관계자를 만나 면담을 하며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를 보여줬다. 넥솔론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기업회생과 전기사용료 인하,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의 국내생산품과 수입품 차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도내기업의 어려움을 전북도에 동향을 전달했으며, 전북도 관계공무원의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익산시와 전북도는 정치권에 넥솔론의 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 시장은 "하루 빨리 넥솔론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계 12위의 기업 가치가 평가되어 세계 1위를 꿈꾸던 기업으로 재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넥솔론은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1위, 세계 12위 기업으로 2007년

7월 법인을 설립하고, 익산시에 투자금 9,000억원, 근로자 200여명을 시작으로 성장한 증경기업이며, 2014년 8월 법정관리 이전까지 근로자 약 1,000여명을 고용할 정도의 특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간 넥솔론은 전세계 태양광 시장에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인한 가격경쟁에 밀려 2014년 8월 기업회생개시한 후 2017년 5월 현재 가동률 30%, 근로자 약 4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임피면 흥철기 주무관 '시와 표현' 신인문학상 수상

군산시 임피면 사무소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흥철기 주무관이 월간 문예지 '시와 표현'이 공모한 2017년 제7회 신인문학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흥 주무관은 지난 2012년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이번 '파프리카를 먹는 카프카'의 4편을 통해 신인상 수상함으로써 신춘문예와 문예지에서 모두 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됐다.

흥 주무관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도 두렵기도 하다"며 "부족한 재주지만 앞으로 시를 통해 군산을 홍보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산=장현 기자

## 익산 폴리텍대 교직원 간 헌혈증 70여장 전달 신동호 교수, 허관우 선생님에게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교직원 간 헌혈증을 기증해 도운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산업설비과 신동호 교수(52)와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는 허관우(67) 선생님이 그 주인공이다.

허관우 선생님의 장남은 지난 2014년부터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앓고 있다.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발생해 혈액세포의 수가 감소하는 병으로 수술이 보존 치료의 관건으로 알려져 있다. 허관우 선생님의 장남 역시 현재 수술을 통한 보존 치료를 받고 있다.

허씨는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 신동호 교수가 허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됐고, 신교수는 4년에 걸쳐 모은 헌혈증 72장을 기꺼이 기증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산업설비과 신동호 교수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비실 허관우 선생님의 장남을 위해 4년에 걸쳐 모은 헌혈증 72장을 기증했다.

헌혈증을 전달한 신교수는 "그동안 다"면서 "허관우 선생님의 장남이 하루빨리 쾌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전국체전 로고송 선정

익산시는 익산 2018 전국체전을 노래하다 로고송 공모전 우수상에 김요한(33)씨의 '우리 함께 뛰어봐요', 장려상에 김홍준·한지수 팀의 '익산을 노래해요'를 각각 선정했다.

시는 지난 2월~4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의 전국체전 홍보와 시민의식 선진화 향상 등을 주제로 로고송 공모전을 실시했다.

강성수(원광대 음악과교수) 위원장과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전국체전홍보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가사와 멜로디가 돋보인 로고송 '우리 함께 뛰어봐요'와 '익산을 노래해요'를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에 선정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김용균, "익산시 좋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야"

### 시의회 행감 의원 질문 유재구·성신용·박종대·윤영숙·조남석 의원 등

익산시의회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대한 꼼꼼한 질문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정립에 힘쓰고 있다.

의원별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은 행정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시민을 대하고 바른 몸가짐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익산시의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구 의원은 교사들의 재직 기간이 짧고 이직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신용 의원은 익산의 많은 축산농가가 앞으로 현대화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에도 까다로운 제도가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고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가 어려움에 부딪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종대 의원은 CCTV이력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잘 된 점이지만, 민간인이 관리할 수 없는 취약지가 있다고 말하고 시에서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은 과태료 등의 세입수입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성과 보고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남석 의원은 앞으로는 AI발생후 사후처리보다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전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는 물론 행정에서도 방역대책 등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청정익산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새만금 장애인예술제' 오디션 열려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통로, 군산에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나눔을 통해 장애의 벽을 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예술제의 준비가 한창이다.

군산시는 지난 30일 군산시장에 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시에서 후원하는 '새만금 장애인예술제' 오디션이 지난달 30일 어린이공연장에서 펼쳐졌다고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장애인 예술인 대상으로 사물놀이, 아름다운 손빛 수화, 하모니카 연주, 기타 밴드 등 6개의 공연팀을 선발하여 오는 9월 본행사인 새만금장애인 예술제를 준비하고자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군산=김필곤 기자



##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 선정

### 창의인재경영 부문 수상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이 '2017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에 선정됐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7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는 탁월한 경영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어 가는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 30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창의인재경영 부문을 수상한 김도중 총장은 탁월한 교육시스템 바탕으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쓰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도중 총장은 2014년 원광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1학기 창업, 전교생 창업학교 이수 등 대학의 개념을 바꾸고, 창직(創職), 창업(創業) 능력을 길러 미래직업을 창조하자

는 경영철학 실천에 앞장서 왔다.

특히 비교과 과목의 통합적이고 융·복합적인 개인별 맞춤 교육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3합 신사: 다문화를 수용하는 국제신사(國際紳士, trans-national), 여러 학문 영역을 이해하는 학제신사(學際紳士, trans-disciplinary), 다양한 종류의 직업 능력을 갖추는 직제신사(職際紳士, trans-competency) 육성' 과제를 내걸고,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과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학생 및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국내 대학 최초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ISO 26000 이행수준 최고등급'을 획득해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대학의 위상을 다지는 한편 신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적응형 인재, 문화콘텐츠가 공이 뛰어난 소프트웨어형 인재 등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4.0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